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9.18)

1. 한국의 지소미아(GSOMIA) 종료 결정 관련

□ [미국 정부 및 의회 동향]

- (폼 페이오 국무장관) 신임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인도-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미래를 보장하고 동맹간 협력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'건설적 대화(constructive dialogue)가 필요' 하다고 강조[1)]

o 한·일간 갈등이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이를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

- (루비오 공화당 의원) 9월말 개최되는 한·미 정상회담에서 '한·일 관계 악화(break up with Japan)' 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[2)]

o 다만 '한·일 문제는 오래되고 역사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경우에 한해(Only if it' s productive)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' 며 신중한 입장을 보임.

- (팀 케인 민주당 의원) 한·미 정상회담 의제로 '북한 문제가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하고 그 다음으로 한·일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' 하다고 밝힘.[3)]

- (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) 한·미 정상이 '한·일 갈등 해결 노력과 모든 역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' 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[4)]

---

1) 「Secretary Michael R. Pompeo's Phone Call with Japanese Foreign Minister Motegi」『U.S. Department of State』(2019. 9. 16).
2) 「미 상원의원들 "미-한 정상회담서 '한-일 갈등' '비핵화 협상' 우선 논의해야"」『VOA Korea』(2019. 9. 18).
3) *Ibid.*
4) *Ibid.*

□ [미국 전문가 반응]

-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부차관보는 ‘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을 것을 제안해야 한다’며 ‘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장기적으로 큰 손실 ’이라고 강조[5)]

5)「“트럼프 ‘지소미아’ 요구하면 금강산 관광·개성공단으로 딜”」『VOA Korea』(2019. 9. 17).